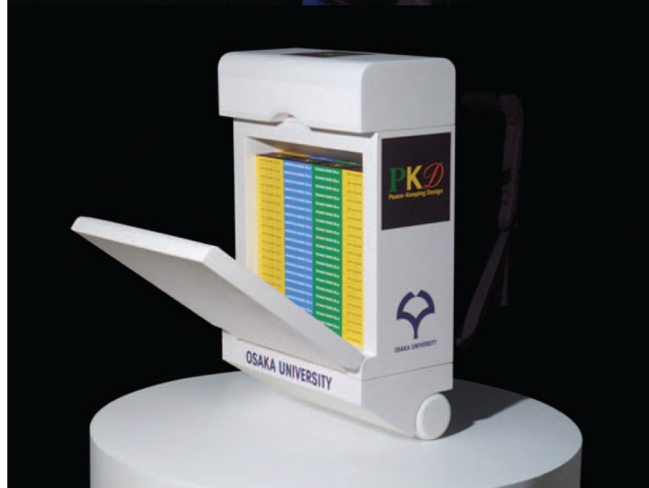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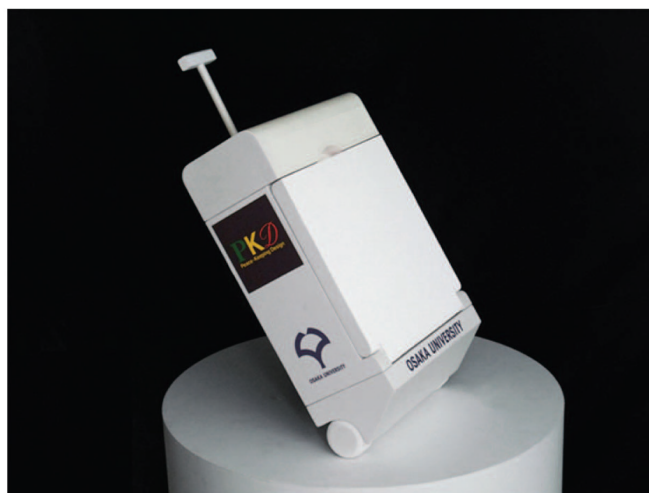




'PKD 백신 리프리저레이터(PKD Vaccine Refrigerator)',
카즈오 가와사키(Kazuo Kawasaki)



'PKD 백신 리프리저레이터(PKD Vaccine Refrigerator)',
카즈오 가와사키(Kazuo Kawasaki)

'디자인 도쿄 2011'의 '프로토 랩'에서 특별 전시로 꼽힌 것은 바로 카즈오 가와사키(Kazuo Kawasaki)의 'PKD 백신 리프리저레이터(PKD Vaccine Refrigerator)'다. 오사카대 엔지니어링학부 교수이자 오작크 디자인 포메이션(OZUK Design Formation) 대표인 그는 개발 도상국 어린이들의 백신접종율을 높이고, 감염증에 의한 사망율을 낮추기 위한 시스템 'PKD 백신 리프리저레이터'를 전시했다. 'PKD 백신 리프리저레이터'는 주삿바늘의 2차 사용에 의한 마약중독, 에이즈 감염자의 확대를 방지하고, 제조, 운반, 관리, 폐기까지 백신 접종에 관한 전체 과정을 디자인해 감염증 문제의 1차원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다. 백신을 최대 3일간 보존할 수 있고, 운반을 위해 내부 온도를 5℃로 유지할 수 있으며, 약 6kg의 무게라 짊어질 수 있어 도보, 자동차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개발 도상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재해 시 일본의 피해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카즈오 가와사키는 'PKD 백신 리프리저레이터'의 기능과 효율성은 물론, '디자인 도쿄 2011' 조직 위원으로서 직접 '프로토 랩'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그는 "디자인은 상품,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지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헌이 가능한 힘이 있다. PKD, 즉 피스-키퍼 디자인(Peace-Keeping Design)이라는 국제적인 디자인 활동을 알리고, 다음 세대 디자이너가 이를 계승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포함해 디자인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 "'프로토 랩'은 지난해 '디자인 도쿄'에도 마련된 부문인데, 일반인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받은 디자인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복수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제 2회째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출품한 디자이너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나아가 혁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아시아로의 인재를 찾고자 한다. 특히 다음 해의 '프로토 랩'에서는 일본인뿐 아니라 외국의 응모자도 모집할 예정이며, 국제적인 젊은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써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NN**